

‘환경기술인의 날’ 정착을 위해



발행인 | 이상호

친애하는 환경기술인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병술(丙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밝고 희망찬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간직하십시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국민의 원성과 분노, 희망과 실망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하고,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정책을 추구해 왔던 정부는 정치적 혼돈속에서 환경정책 또한 후퇴하고 있어 환경인들을 다소 힘들게 한 1년이기도 했습니다. 연합회 역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조금은 벽찬 한 해를 보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회원의 기술력 향상과 권익 및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 연합회에서는 전문 기술인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력 향상과 정보교류 및 지위향상의 기틀 마련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2월 25일 ‘환경기술인의 날’ 제정·선포식을 갖고, 매년 10월 10일을 ‘환경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리 기술인이 실천해야 할 ‘환경기술인 헌장’도 제정·선포하였습니다. 국가환경보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환경기술인의 업적을 높이 기리고, 사기를 진작시켜 기술인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기술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0월 10일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 기념일을 계기로 무엇보다 우리 환경기술인이 진일보 도약·발전하는 원년의 해로 승화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문제를 예방적,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국제화에 발맞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끊임없이 회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기술인의 날’ 제정취지와 목적에 근거하여 본 기념일이 정착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환경기술인 헌장’도 우리 모두가 숭선수범해서 실천하고, 전문 환경기술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는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기술인들의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 활성화, 재정자립의 정착, 회원 영입 배가운동, ‘환경인 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 등에 환경인 모두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위상과 기술력 향상에 큰 변화와 함께 전문 환경기술인으로 도약·발전하는 원년의 한해가 되기 위해 힘차게 뛰어봅시다.

희망과 꿈이 가득한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